‘백제 미소’ 원찰 보원사, 천년을 깨우다

11월 29일, 장경각 불사 기공식
오층석탑 국보 승격·승방지 발굴
역사 가치 조명…중창 불사 첫발

유재상 충청지사장



내포가야산보원사는 11월 29일 보원사지 일원에서 ‘보원사 장경각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백제의 미소’ 원찰이자 통일신라시대 화엄십찰 중 하나인 서산 보원사의 1000년 역사를 깨울 불사가 시작됐다. 최근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국보 승격 예고와 고려 최대 승방지 발굴 등의 성과와 맞물려 진행되는 중창불사로 보원사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옛 위상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포가야산보원사(운영위원장 정경 스님, 주지 단경 스님)는 11월 29일 보원사지 일원에서 ‘보원사 장경각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와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호계원장 정묵 스님, 내포가야산보원사 성역화 추진위원장 정범 스님과 불사도감 정경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이완섭 서산시장, 박정주 행정부지사,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 성일종 국회의원, 수덕사 신도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도신 스님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임시 법당과 요사채로 신행을 이어 오던 보원사가 이제 전통 가람의 위의를 갖추고 부처님의 혜명을 잇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스님은 “우리 수덕사 대중들이 보원사의 역사적 가치 회복을 위한 성역화와 중창불사를 발원한 것은 무려 1978년부터로, 긴 시간이 걸렸지만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새로운 서해안 1000년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이 순간, 환희와 무거운 책임감이 함께한다. 보원사가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적·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경 스님은 장경각 건립 경과보고에서 2012년 서산시와 수덕사의 업무협의체 구성 이후 2021년 보원사지 정비 용역 결정, 2023년 장경각·관리동 건립 합의, 2024년 설계 보조금 확정과 설계사 선정, 올해 기본·실시설계 승인과 토지 매입·교환 완료, 시공사 선정 등까지의 주요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최근 확인된 오층석탑 국보 승격 예고와 고려 철불 반환 논의에 대해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노력해 온 분들의 정성과 의지가 오늘의 결실을 이끌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축사에서 “보원사는 오랜 세월 역사의 중심 역할을 해 온 공간”이라며 “이번 중창불사로 보원사가 시민과 방문객의 마음을 다독이고 희망을 주는 도량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주 행정부지사는 “오층석탑 국보 지정 예고를 계기로 전국적 관심이 확대됐고 앞으로 방문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은 “장경각 건립이 지역과 불교계를 잇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완공까지 지속적으로 함께할 뜻을 전했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이번 불사는 사찰의 중건을 넘어 역사 복원과 미래를 여는 대역사”라고 강조하며 스님·연구자·행정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달하 우송 대종사의 정근과 축원이 울려 퍼지자 참석 대중은 관음정근을 하며 장경각 건립과 중창불사의 원만 성취를 발원했다. 또 불사에 뜻을 모은 참석자들이 첫 삽을 뜨며 보원사가 다시 시대의 도량으로 우뚝 서기를 기원했다.

보원사는 장경각에 이어 승실, 연구동 등을 순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행 공간이 정비되고 방문자 시설이 마련되면 보원사는 백제·통일신라·고려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을 품은 도량이자 서해안 시대의 정신·문화 중심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대강백 운허 스님 가르침 계승하겠습니다”

봉선사, 11월 29일 운허 스님 45주기 및 건당식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는 11월 29일 경내 청풍루에서 ‘운허당 용하 대종사 시적 제45주기 기신재 및 입실 건당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일생을 역경 사업과 인재 양성,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운허 스님의 위업을 기리고 후학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법회에는 봉선사 조실 밀운 부림 대종사를 비롯해 원로의원 두산 일면 대종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능엄학림 학장 취봉 정원 대종사, 원로 청허 화범 대종사, 수월 무착 대종사 등 문도 스님들과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운허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기신재에 이어 봉행된 ‘입실 건당식(入室 建幢式)’에서는 봉선사의 법맥이 새로운 세대로 이어졌다. 건당식에서는 어산어장 인묵 스님에게 지경 스님이, 전 불암사 주지 법일 스님에게 관무 스님이 각각 법을 청하며 건당 제자로 입실했다. 건당 제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의 길을 걸을 것을 서원하며 스승에게 삼배를 올렸고, 스승은 제자에게 가사와 발우를 전하며 수행 정진을 당부했다.

조실 밀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말고, 인천(人天)의 사표가 되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라”고 격려했다.

오후에는 진접푸른숲도서관 공연장에서 남양주 진접 지역의 3·1 만세운동 역사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그날’이 무대에 올랐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스님들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구하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왔다”며 “오늘 이 자리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 주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남해 보리암, 고산당 혜원 대종사 사리탑 제막

11월 29일, 제막식 봉행
“수행 전통 굳건히 계승을”


남해 보리암은 11월 29일 고산당 혜원 대종사 사리탑을 제막했다. 사진은 인사말을 하는 보리암 주지 성조 스님.

남해 보리암(주지 성조 스님)이 선대 조실 고산당 혜원 대종사 사리탑을 조성하고 스님의 수행 전통 계승을 서원했다.

11월 29일 보리암에서 열린 ‘고산당 혜원 대종사 사리탑 제막식’에는 스님의 제자인 보광 대종사와 덕민 대종사를 비롯해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 보리암 주지 성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1부 점안 의식에 이어 2부 제막 법요는 삼귀의, 헌향, 헌다, 헌화, 반야심경 봉독, 축사, 덕민 대종사의 비문 해석, 공로패 수여, 인사말, 부도탑 오색사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보리암은 이날 사리탑 조성에 기여한 김한열 보광석재 대표와 손종복 불자, 이남철 신도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성조 스님은 인사말에서 “큰스님으로부터 금산 보리암은 천지의 기운이 모인 성지이니 작은 돌 하나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당부를 세 번이나 들었다”고 회고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자 사리탑의 자리·모양·배치를 정하는 모든 과정이 조심스럽고 무거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넉넉하게 모시지 못한 마음의 빚이 있지만 평생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사리를 봉안했다”며 “참배하는 모든 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를 갖추어 달라”고 당부했다.

영담 스님은 “오늘 사리탑 제막은 후학들이 따를 길을 밝혀 주는 수행의 이정표”라며 “대종사께서 남기신 청정 수행과 가풍이 다시 살아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보리암이 앞으로도 수행과 기도의 도량으로 더욱 빛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보광 스님은 법문에서 “우리 삶의 고통은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에서 비롯된다”며 “남 탓을 멈추고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라고 설했다. 이어 “부처님 사리는 육신이 아니라 자비·정진·깨달음의 상징”이라 강조하며 “사리를 친견하는 순간이 곧 본받겠다는 서원이며 수행의 출발점”이라고 일깨웠다.

덕민 스님은 비문에 새겨진 혜원 스님의 수행 행적과 보리암의 역사를 상세히 소개하며 “이번 불사는 여러 기관과 신도들의 정성이 모여 성취된 공덕이다.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며 대중의 안녕을 기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보리왓 보리수어린이합창단 정기공연

11월 28일, 설문대문화회관



보리수어린이합창단은 11월 28일 제주 설문대여성문화회관에서 정기공연 ‘보리수 아름다운 인연 그 길을 따르리라’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합창단 지도법사인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 스님과 조계종 미디어홍보실장 덕안 스님, 선림사 진학 스님, 시원암 주지이자 천진불어린이합창단 총괄국장 도진 스님 등이 참석했다.

합창단원 26명은 무대에 올라 올여름부터 정성껏 갈고 닦은 합창 실력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인연’, ‘그 길을 따르리라’, ‘보물’, ‘시즌 오브 러브(Season of Love)’ 등을 불러 관객들의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특히 ‘아름다운 인연’은 지도법사 성원 스님이 작사를 맡아 의미를 더했다.

성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법당에서 노래를 배우며 배려와 존중, 부처님의 가르침, 가사 의미를 되새기는 마음공부까지 함께 이뤄 온 소중한 결실”이라고 격려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마이산 탑사 가을 산신대재 성료

11월 28일, 탑사 돌탑군서



신비의 돌탑군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명승으로 지정된 마이산 탑사(회주 진성 스님)가 을사년 가을 산신대재를 봉행했다.〈사진〉

11월 9일 마이산 탑사 돌탑군 앞에 전국각지에서 생산된 공양물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자비의 쌀이 진설된 특별법단에서 봉행된 산신대재는 원융회장 일로 스님, 태고종 전북교구종무원 부원장 현진 스님, 진성문도회 정진·마정·정륜·정념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자비심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공양미를 나누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념법회에서 (사)붓다봉사단은 복성산업개발의 후원으로 마련한 자비의 쌀 3톤(1000만원 상당)을 진안군에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담양 용흥사 면면, ‘산중문답’으로 전하다

11월 29일 인문콘서트 진행
예술 · 불화 · 명상 결합 법석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 스님)가 사찰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전통예술과 명상, 인문적 사유를 결합한 특별한 가을 무대를 열었다.

담양군문화재단은 11월 29일 용흥사 대웅전과 보제루에서 ‘2025 담양 인문콘서트 산중문답(山中聞答)’을 개최하고, 동종(보물)과 사찰 공간의 울림을 전통공연예술과 함께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1644년 조성돼 현재 보물로 지정된 용흥사 동종을 중심으로, 사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는 호국사 동천 스님, 덕유 스님을 비롯해 담양지역 예술인과 신도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첫 무대는 동종이 모셔진 대웅전에서 열린 ‘명금(鳴金)’으로 시작됐다. 주지 덕유 스님의 타종과 함께 사물 타악기의 연주가 어우러지며 용흥사 동종의 깊고 웅장한 울림이 현장을 채웠다.

이어 연희단팔산대의 판굿, 전통타악시나위 등이 펼쳐졌다. 보제루에서는 국가무형문화유산 불화장 전승교육사 이채원이 동종에 새겨진 보살입상을 재현하는 ‘명선(鳴線)’ 퍼포먼스를 비롯해 주지 스님의 화답, 채상소고춤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백양사 천진암 사찰음식 명인 정관 스님이 마련한 사찰음식을 나누며 회향의 시간을 가졌다.

주지 덕유 스님은 “오늘 타종의 울림이 산중에만 머무르지 않고 널리 퍼져, 모두의 소원이 성취되는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첫 단기출가학교 회향

11월 30일 회향식…11명 수료
범어사, 진관사 등도 진행 예정



선운사의 첫 단기출가학교가 9박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1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며 11월 30일 회향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11월 30일 대웅보전에서 제1기 단기출가학교 회향식을 개최했다.〈사진〉 ‘쉼, 그리고 시작’을 주제로 9박 10일간 진행된 이번 출가학교에는 남행자 6명과 여행자 5명 등 총 11명이 입교해 일정을 수료했다.

특히 14살 학생부터 66살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일정 동안 새벽 4시에 기상해 새벽예불을 시작으로 사찰예절과 목탁 예불습의, 참선 등을 익히고 부처님 생애, 〈초발심자경문〉, 〈반야심경〉 등을 배웠다.

회향식에서 주지 경우 스님과 본말사 대중 스님들은 참가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자비와 지혜의 길을 굳건히 닦아 나가기를 축원했다.

경우 스님은 치사에서 “출가학교를 나선 뒤에도 이곳에서 배운 ‘한 번 더 돌아보는 마음’, ‘한 번 더 멈추는 숨’, ‘한 번 더 자비를 선택하는 지혜’가 삶에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료생들은 발원문을 통해 “수행 과정에서 배운 마음 챙김과 지혜를 일상에서도 실천하며 지혜와 자비를 잊지 않고 베풀겠다. 돌아가는 일상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든 순간에 드러내겠다”고 서원했다.

조계종 교구본사 단기출가학교는 지난 9월 문을 연 덕숭총림 수덕사 선출가학교와 이번 선운사 출가학교에 이어 12월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내년에는 속초 신흥사와 서울 진관사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무악극 ‘사명당 아리랑’ 초연

11월 29일 밀양아리랑아트센터…사명 대사 정신 되새겨



사명 대사의 호국·평화 정신을 기린 가무악극 ‘사명당 아리랑 – 한비(汗碑)’가 11월 29일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첫선을 보였다.〈사진〉

밀양아리랑예술단(단장 김금희)이 제작한 ‘사명당 아리랑’은 나라에 큰 변란이 있을 때마다 땀을 흘린다는 표충비 ‘한비’를 모티브로, 사명 대사의 삶과 전란 속에서 승병을 이끌며 나라를 구한 구국 행적을 압축적으로 재구성한 가무극이다.

밀양불교연합회장 진각 스님(표충사 주지)은 축사에서 “승려의 신분으로 나라를 지키고 전쟁 후에는 외교로 평화를 이끈 사명 대사의 업적이 다시 조명돼야 한다”며 “이번 창작극으로 사명 대사의 고귀한 정신이 밀양을 넘어 전국에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